

# 밀실에서 뛰쳐 나온 '동성애' 논의

성과 권력관계 탐구, 동성애에 관한 다양한 정보도 담아

성개방의 물결 속에 동성애 문제가 밀실에서 전면으로 나왔다. 그 논의 자체도 꺼릴 정도의 금기였던 동성애에 대해 지식인들의 공론이 활발히 이루어지기 시작했고 관련서적도 나날이 늘고 있다.

## 권력과 밀접한 성역할

동성애 관련 도서들은 대체로 푸코를 위시한 철학자들이 관심을 보여온 성과 권력의 관계, 정상과 비정상, 성역사의 재발굴이라는 맥락에서 이루어진 저작들이다. 최근 발간된 동성애 관련 번역서와 저서는 《터부에서 상식으로의 전환》 《누가 성정치학을 두려워하라》 《성의 불가사의》 《The Gay 100 - 소크라테스에서 마돈나까지》 《아무것도 되는 게 없어》 등이 있다.

동성애를 다룬 책들은 플라톤이 거론한 에로스의 실체가 남성동성애라는 것을 비롯하여 고대로부터 이어져온 동성애의 역사를 밝히고 성과 권력의 관계 속에 동성애가 억압되어 왔음을 주장한다. 가족제도와 계급제도가 확립되는 근대체제 시기에 동성애는 계도로 내몰렸는데, 그 배경은 성별과 계급이 와해되는 요소가 있는 동성애가 체제위협적인 것으로 여겨졌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푸코와 같은 학자들은 동성애를 정상과 비정상 개념, 지식체계와 권력 사이의 관계로 보고 본격적으로 거론하기 시작했다. 신체나 정신의 정상과 비정상을 어떻게 정의하며, 또 그 '비정상'과 '병적인 상태'를 누가 어떻게 규제하고 관리하는가 하는 문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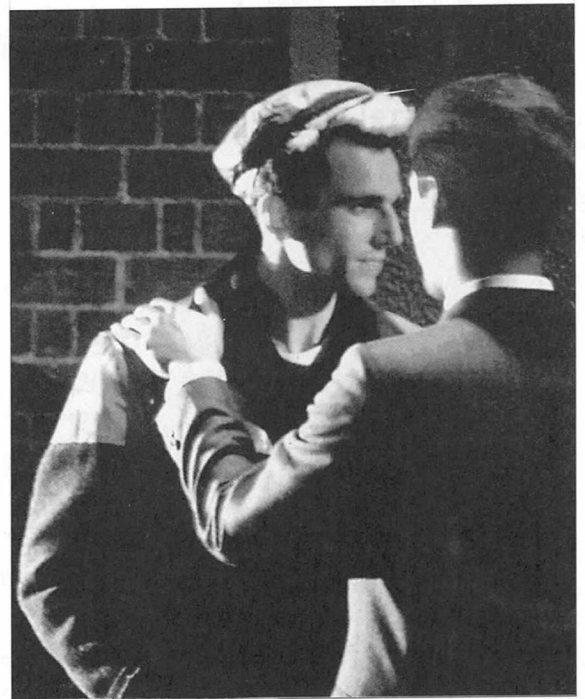
다. 여기에 권력이 개입하며 감시와 처벌로 체제를 유지해 왔다는 것이다.

국내서적으로는 지난해 상반기에 나온 서동진의 《누가 성정치학을 두려워하라》(문예마당)가 성과 정치와 문화를 총괄적인 시각으로 분석하고 있다. 그는 성에 대한 근대적 관념을 억압하는 '이성에 중심주의' '성인 중심의 성' '성기 중심의 성'의 보편성을 비판한다. 이 3가지의 성만이 보편적이고 나머지의 성들은 모두 '병리적' '변태적' '퇴폐적'이라는 일반의 신념을 반박하며 성이 데올로기의 정치적 관계를 해명하고 성정치학을 급진정치학과 연결시킨다.

문화인류학자 마빈 해리스의 《아무것도 되는 게 없어》(황금가지)는 미국의 문제점을 살피는 가운데 60년대 후반 이후 급증한 동성애에 주목한다. 그는 동성애가 인류역사에 언제나 존재해온 성행태였음을 주장하고, 기독교 전통을 지닌 서구사회를 중심으로 결혼과 출산의 의무가 강조되면서 동성애가 금기시됐지만 출산장려가 사라지고 성적 자유가 확대되기 시작하자 재등장했다는 논지를 펴다.

## 동성애의 유전적 신비도 탐구

기요시마 기요시의 《성의 불가사의》(작자나무)는 이성애자와 동성애자의 유전적 차이를 주장하여 흥미를 끈다. 인간의 성은 유전적 요소인 성기와 뇌의 성분화에 따라 결정되는데, 뇌의 성분화 과정에서 남성호르몬인 안드로겐 분비량의 과다에 따라 남성



동성애를 소재로 한 영화 《나의 아름다운 세탁소》 중 한 장면.

녀와 여성뇌가 결정된다는 것. 이때 태아의 뇌가 충분히 남성화하지 않으면 남성이면서도 스스로를 여성으로 인식하는 결과를 낳게 된다는 것이다. 동성애는 유전적인 성별과 뇌의 성별이 불일치하는 데서 비롯된다는 것이다.

최근에 나온 최 안드레아의 《터부에서 상식으로의 전환》(아미)은 지금까지 나온 성정치학이나 철학과 관점이 다르다. 동성애자인 작가가 동성애에 관한 정보와 인식의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직접 자료를 모아 쓴 책이기 때문이다. 이 책의 논조는 문화의 전위부대로 고양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한 인간의 성적 성향으로서의 동성애에 대해 진지하게 다루고 있다. 동성애의 역사, 관련 용어, 동성애에 관해 궁금했던 사항을 다양하고 심도있게 다루었다. 저자의 체험과 다양한 자료, 면담을 통해 얻은 동성애에 대한 모든 정보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했다. 동성애는 성적 성향일 뿐 그 사람의 인격과 능력

을 결정하는 전체일 수 없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그리스·로마시대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2400여년 동안 서구의 역사에 두드러진 업적을 남긴 남녀동성애자 100명을 소개한 이색적인 책도 있다. 폴 러셀 교수의 《The Gay 100 - 소크라테스에서 마돈나까지》(사회평론)는 '소년에 대한 열정은 신성한 광기'라고 말한 그리스의 철학자 소크라테스를 1순위로 꼽았으며, 레즈비언의 시조격인 그리스의 여류시인 사포, 미국의 극작가 오스카 와일드, 영국의 대문호 윌리엄 셰익스피어, 동성애자들에게 이론적 무기를 제공한 프랑스의 현대사가 미셀 푸코와 루스 베네딕트 등 서구 지식들의 숨겨진 삶과 일화를 역사적 자료를 토대로 추적하고 있다.

동성애가 금기에서 보편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지기에는 시기상조인지 모르지만 출판과 대중매체를 통해 그 이론은 점점 다양해지고 있다. — 마정미 기자

한양아트콤!! 최고만을 고집합니다

입력에서 출력까지!

• 대형 드럼스캐너에 의한 고해상도 원고 입력 서비스 최신행 출력기에 의한 빠른 분판film 출력서비스로 사용자 여러분들을 정성껏 도와드리겠습니다.  
• 저희 한양아트콤에서는 최신행 기계와 최고의 기술로 고품질의 입·출력 서비스를 24시간 해 드리고 있습니다.

한양아트콤!  
전화주시면  
달려가겠습니다.

• 원색 분판 출력  
• 원색 스캔 입력  
• CD 입력  
• 이미지 합성 리터칭

한양아트콤

서울시 중구 을지로 3가 296-16  
TEL : (02)275-6226 (대표)  
FAX : (02)268-6972